

##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령도업적

정 대 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신것이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제국주의반동들은 《세계문화》, 《국적없는 문화》를 제창하면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말살하기 위한 일대 소동을 벌리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과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던 시기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분발하여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 대전성기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의 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높은 리상과 목표를 가지고 과감한 투쟁을 벌려 선군시대 우리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나 가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2권 395페이지)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인민군대가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보급하는 투쟁의 앞장에서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신것이다.

선군시대는 모든 사업에서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선봉적역할을 높여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공훈국가합창단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독자적인 예술단체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6(1997)년 가을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남성합창단을 분리하여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으로 독자적인 공연활동을 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데 이어 공훈국가합창단으로 승격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합창단을 잘 꾸려주시기 위하여 가극혁명의 나날에 몸소 키우신 배우들을 보내주시고 선창가수들도 한사람한사람 선정하여 키워주시였다. 그리고 혁명군대의 성격에 맞는 주체적인 관현악을 창조하도록 그 편성원칙도 밝혀주시였으며 합창단이 부를 노래도 한곡한곡 그 형상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명곡이 있어야 명합창이 나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져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이라고 명곡창작방향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공훈국가합창단은 최고사령관의 믿음직한 나

팔수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합창단이 부르는 한곡한곡의 노래들은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위력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게 되었다.

공훈국가합창단은 선군시대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훌륭히 창작하였고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우리는 잊지 않으리》를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창작공연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불려일으켰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한 로씨야의 명성높은 합창단의 지휘자는 당신들은 이 노래를 가지고 세계를 붉은기로 통일할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합창단의 노래는 이제 총 한방 쏘지 않고 온 세계를 정화시킬수 있을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인민군대 예술인들이 영화와 무대부문에서도 주동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당시)에서는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사물영화창작에 기본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시고 촬영소의 예술인들과 영화창작가들을 혁명군대사상전선의 제1선을 지켜선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최현편), 《옛 경위대원들》, 《7련대의 아들》, 《고요한 전방》, 《비행사 길영조》, 《명령만 내리시라》, 《복무의 길》, 《우리 정치위원》 등 사상성이 높고 교양적의의가 큰 영화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그리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으며 격동도 있는 특색있는 경희극들을 련속 창작공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수행으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2(2003)년 8월 경희극 《악숙》, 《축복》, 《편지》, 《동지》와 같은 작품들은 다 내용이 좋고 특색이 있다고, 그 경희극들에서는 인민군군인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인민군대의 예술인들은 사상전선의 최전방에서서 천만군민을 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 중대예술소조활동과 군인가족예술소조활동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3(1994)년 12월 중대를 기본단위로 하여 예술소조활동을 벌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군인들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부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며 인민군대에서 중대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4(1995)년 2월 어느 한 녀성해안포중대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고 손풍금을 비롯한 악기들을 많이 생산하여 구분대들에 보내주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우수한 중대들을 평양에 불려다 공연도 하게 하고 TV방송으로 방영하여 전군, 전민이 다 보도록 해주시였다. 그리고 공화국창건 50돐과 당창건 55돐을 비롯한 중요계기마다에 조선인민군 군무자예술축전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중대예술소조활동은 전체 군인들이 누구나 다 참가하는 명실공히 대중적인 예술활동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건군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었다.

군인가족들은 조국보위초소에 선 남편들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을 사수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살며 싸워나가는 자랑스러운 여성혁명가들이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난관이 심화되고 어려움이 더해지자 일시적난관앞에서 사회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노래소리가 저조해지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조직하도록 하신것은 군인가족들을 혁명화하고 군인들을 고무하며 근로자들에게 군인가족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생활기풍을 보여주어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추동할수 있게 한 혁명적인 조치였다.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발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7(1998)년 4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의 첫 공연을 보시고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으며 인민군대에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전통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의 전투적인 노래소리는 최전연초소들과 자강도 그리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전투장들에서 힘차게 울려 퍼졌다.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명작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신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을 벌려야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명작을 많이 창작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강행군을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당의 의도는 곧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고 가치있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당의 의도를 모르고 창작한 예술작품은 혁명과 건설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시대의 장엄한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의 요구를 구현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영생》과 《천지》, 《열병광장》, 총서 《불멸의 향도》중에서 장편소설 《력사의 대화》, 《평양은 선언한다》, 《평양의 봉화》, 《서해전역》, 《강계정신》 그리고 장편소설 《동해천리》, 《빛나는 년대기》, 《조국의 아들》을 비롯한 소설작품들,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높이 들자 붉은기》, 장시 《태양은 빛난다》를 비롯한 수많은 시작품들과 노래들이 명작으로 창작완성되었다.

이 시기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총화작인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로동계급편을 비롯한 수많은 걸작들이 세상에 나오고 음악, 무용, 미술, 무대예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창작적앙양이 일어나 각계각층 근로자들이 시련속에서도 락관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1990년대말에 이어 새 세기에도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킨 본보기작품인 《평양날과람》, 《백옥》을 비롯한 많은 예술영화들과 기록영화, 과학영화, 만화영화들이 창작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경희극 《산울림》과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이었으며 특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세계적인 대결작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20세기 문예부흥의 총화작으로 완성시켜주신데 이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창작을 발기하시고 작품의 종자와 내용으로부터 구성과 형식, 작품에 넣을 노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리하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세계적인 대결작으로 창작완성되어 우리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공연을 관람한 외국의 벗들은 이 공연을 보면서 조선인민이 걸어온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막강한 경제적잠재력과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걱정을 토로하였다. 온 세상을 《아리랑》열풍에 휩싸이게 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주체96(2007)년 8월에 기니스세계기록증서를 수여받았다.

신군시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군중문화예술활동으로 온 나라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군중문화예술활동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과 위훈에로 불려일으키며 온 사회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으며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나가자면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잘 조직하여 온 나라에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중문화예술을 전문화하거나 전문단체의 흥내를 내지 말고 사상성을 기본으로 하여 소박하게 통속적으로 인민군대에서처럼 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데서 제일 규모가 큰 전국인민예술축전을 조직하여 성황리에 진행하도록 하시었다.

주체87(1998)년에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인민예술축전은 중앙과 지방의 수십만명의 군중문화예술소조원들이 참가하여 군중문화예술의 대화원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강도를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자강도를 찾으실 때마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도에서 준비한 예술공연을 매번 보아주시었으며 온 나라가 자강도의 군중문화예술활동경험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편 군중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며 인민군대에서처럼 사회에서도 로동자, 사무원가족예술소조경연을 조직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평양 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며 당의 사상과 요구에 맞게 예술활동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예술소조활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발히 벌어져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마다에서 노래소리가 울리고 춤가락이 펼쳐졌으며 군중문화예술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수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문화예술은 격동적인 시대의 숨결로 맥박치고 세계를 향하여 과감하게 돌진하는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열어놓으신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은 전체 인민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해나가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명작창작으로 수령을 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하며 당의 척후대, 나팔수로 복무해온 전세대 문예전사들의 투쟁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사상전선의 기수로 되여야 한다.

하여 전체 인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창조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총진군대오에 활력을 더해주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문학예술, 군중문화